

불교와 아동교육

황 옥 자

동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불법에 기초한 어린이 교육을 논의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불교아동교육은 순수불교 연구와는 달리 응용학이며, 실천학문의 범주에 속하므로, 학문적 논의의 기반은 종교(불교)와 과학(교육)의 만남에 두어 통합적으로 접목한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어린이는 본래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 인간상은 깨달음을 증득한 붓다이다. 따라서 불교아동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붓다의 인격을 닮아 지혜와 자비를 갖춘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에 바탕을 두어 불법의 지혜와 방편을 아동교육에 수용·접목하여서 본래의 선한 심성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맑고 밝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개괄적으로나마 논의하였다.

우선 출생에서 12세까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고발달을 종교적인 맥락에서 크게 5단계로 나누었다. 그 첫 단계는 태아기로 간접적 흡수단계기라 하였으며, 제 2단계인 영아기(출생-2세)는 직접적 흡수단계기, 제 3단계인 유아 전기(2-4세)는 모방적 단계기, 제 4단계 유아후기(4-7세)는 우화적 단계기, 제 5단계인 아동기(7-12세)는 사실적 단계기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단계에 따라 불교아동교육의 목표인 지혜와 자비심의 싹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발달수준이나 특성에 알맞게 구성하였다. 한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건전하고 바른 인격자로 성장하여 모든 생명체는 물론 자연에 이르기까지 존중하고 원용과 화해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미덕을 배양해 간다면 미래사회는 더욱 밝고 희망이 가득하리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어린이 교육에서 지향하는 목표이며 역할이다.

핵심 주제어: 불교적 사고, 씨앗포교기, 새싹티우기, 불교적 세계관, 상생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며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구와 희망을 성취하도록 이끌면서 삶을 보람되고 가치롭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교육과 종교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 종교의 역사는 인간 삶의 역사와도 비례하는 것이며, 교육과 종교는 서로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교육과 종교는 인간의 삶과 더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 발전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내재하며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나름대로의 특정한 종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교육은 이 특정한 종교의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며 존재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종교를 떠나서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구미의 근대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사회경제적 근대화 이념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구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공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이 배제되기에 이르렀다.¹⁾

물론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가 있다.

근대의 공교육 체제로의 교육개혁에서 종교교육이 배제된 것은 교육에 있어서 종교적 가치가 전면 필요하지 않다거나 해롭다는 인식에서의 일은 아니며,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에 입각한 일이었다.

오늘날 첨단과학의 발달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경쟁은 이제 불가피한 삶의 방식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식 제일주의적 교육 풍토는 일등이나 일류학교 등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적응이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직은 더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이 요구되는 어린이들에게엔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과 민감한 태도로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고 돌보아줄 성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과다한 학습량과 각종 사교육기관에 밀려 자신들만의 여유나 마음껏 뛰어 놀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신 아이들은 공부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컴퓨터와 TV 등의 자극적인 영상매체에서 해결

1) 박선영, 『불교와 교육』(서울: 학지사, 2006), 260-261쪽.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며 분출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인 자극들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오락이나 영상매체들에 의존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또래친구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²⁾

요즈음 어린이들은 예전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우울하며, 공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³⁾ 이것은 오늘의 교육이나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낳은 결과들이며, 자극적인 영상매체의 장기적 노출로 인해 벌어진 부정적 영향이자, 무한경쟁시대가 낳은 일종의 부적응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생명경시적 행동들이나 각종 사회 병리적 현상들의 원인을 강박적인 사회에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 그리고 좌절된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종교는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며 편안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종교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며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안전과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 역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격체이므로 그 나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선하고 좋은 삶은 희구하고, 어렵고 불행한 삶은 최대한 피해가려고 한다. 어린이들 삶 속에서 그 나름의 종교성이 뿌리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의 기초 시기는 유아기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유아기는 인간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인간됨의 교육, 바른 사람으로의 교육은 유아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의 삶과 더불어 발달되어온 종교는 인간됨의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교육가 슈타이너(Rodolf Steiner)⁴⁾도 ‘교육한다는 것은 학문, 예술, 종교를 배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종교 특히 불교에 초점을 맞추어 어린이 마음속에 불교적 사고가 싹트고 형성되는 단계와 불교적 사고 발달과정에 불교성의 계발을 위한 교육적 방안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불교적 세계관에 의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불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불교는 한국인의 정서와 인생관에 토대를 이루며 교육이나 생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발견 할 수가 있다.⁵⁾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생명체들 즉 인간, 사물, 그리고 자연이 서로 관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연기론에 기초한다. 이러한 연기론은 나와 우주 만물이 상호 밀접

2) 이종미, 『명상이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3) 김지현, 『불교 명상활동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3).

4) Rodolf Steiner, *Die Erziehung des Kindes / Die Methodik des Lehrens*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61).

5) 황옥자, 『불교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 연구』 제29권 (한국 종교교육학회, 2009), 2쪽.

하게 연결된 존재들이며, 그 근원은 하나라는 진리를 꿰뚫어 깨닫게 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혜이다.⁶⁾ 모든 존재에 대한 관계론적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너와 내가 공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행의 구현이 바로 자비이다.

그렇다면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는 아동개념은 발달심리학적 아동개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달상 아동은 곧 미성숙자라는 뜻을 내포한다. 자기 혼자 힘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심신이 덜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인의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불교적 아동개념은 연령이나 발달적 차원으로만 규정짓기보다는 불성이 내재된 인간성 내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다. 예컨대 연령 면에서는 아동시기를 벗어나 성인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면 어린아이 취급을 하였으며, 어린동자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잡아함경』이나 『증일아함경』 수타품 등과 같은 불전에 나온다.⁷⁾

신체적 발달이 덜된 상태의 미성숙하다는 개념이 불교적으로는 아직 깨달음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성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현대의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연령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현대의 생활에서 무명(無明)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불교적 아동관은 발달이나 연령적으로 보아 어리다는 시각에서 아동의 능력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불성을 소유한 깨달음의 존재로 존중을 한다.

본 연구는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어린이가 지혜와 자비심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인격을 갖추어 가도록 인도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아동의 종교적 발달단계에 따라 지혜와 자비심의 싹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불교적 교육방법을 불법의 지혜와 방편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린이가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붓다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안내하며, 성장기 아동들이 지향하는 원융과 화해 그리고 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정서를 배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미래의 주인공인 오늘의 어린이들이 바른 심성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도덕적 인간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불교교육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관 내지는 추구하는 인간상에도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둔다.

6) 이연숙, 『정신 아함경』(서울: 시공사, 1999), 44쪽.

7)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서울: 불교시대사, 2007), 21쪽.

II. 종교성과 불성의 개념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종교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발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탐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유아는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하여 찬탄, 환희, 기쁨의 감정을 드러내어 자비와 애정의 관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대상에 대하여 지극한 마음, 순종하는 태도,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흔히 유아들이 취하는 이들 자발적인 감정은 성인의 종교성과 구별되는 단지 일시적인 성향이라고 간과해 버릴 수 있으나 이들 성향은 면밀한 의미에서 종교성과 관련된 자발적 감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성에 관한 잘못된 견해로 흔히 종교적 감정은 일반 감정과는 다르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특정시기에 가서야 형성되는 그러한 특수한 감정이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종교성은 그렇게 특수한 감정인 것도 아니며 연령적으로 성숙된 시기에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가장 단순한 감정이나 또는 여러 감정들이 통합되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심리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은 독일의 종교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슈라이어마허가 종교적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나 과학적 감정, 예술적 감정과 병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합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심리학자들에 있어서 종교는 체험된 경험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아직은 미성숙한 유아에게 있어서 종교는 단순한 감정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어린이의 표현된 감정이 비록 단순하게 보일지언정 그 감정은 바로 미래의 종교성으로 발달할 수 있는 씨앗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종교개념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연구조사를 살펴보면, 유아는 그들 자신의 불안과 사랑에서 기인된 이중적 마음의 움직임에 의하여 종교적 감정이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철저히 분석한 사람은 오토(otto)이다. 오토(1949)는 전능하고 지존함에 대한 경외감과 초자연적 대상에 대한 황홀감이 유아의 마음속에 혼합되어 있으며 경외감은 불안을, 황홀감은 사랑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불안과 사랑은 내적 종교의 특징적인 근본요소라고 하였다.⁸⁾

인간의 마음과 그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불교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항상 대립된 감정의 선택에 갈등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생과 사, 선과 악,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대립되는 두 현상이 공존하고 있으며 번뇌 망상과 지혜, 일체 중생과 부처님이 한 마음에 공존하며 인간의 삶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긴다.

8)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서광사, 1986), 68쪽.

긍정과 부정의 두 대립된 현상이 서로 같은 공간에 위치하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매우 불확실하며 불안한 미래를 상상케 한다. 그러나 인간이란 긍정적이고 선하며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고 지향해 나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이라고 명명한다.⁹⁾

불성의 근본 의미는 불(佛)의 성품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불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인간에게 차별없이 내재되어 있다는 평등한 인간관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善)하다고 보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선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성선설에서 의미하는 선의 개념과는 다르며 선악이라는 양 극단적 편견을 초월함으로써 체득되어지는 절대적인 선인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파악하는 종교적 감정이란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성향이며 착한 감정을 통틀어 일컫는다. 그리하여 선하고 바른 것을 지향하는 이들 종교적 감정은 생활속에서 표현되고 실천을 통해 더욱 성숙되어 가도록 도모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며 임무라 하겠다.¹⁰⁾

올포트(G. W. Allport)는 본능적이고 유아적인 종교심에서 성숙한 종교심으로 발달된 종교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¹⁾

첫째, 직접적인 본능적 충동의 포기인 자신의 확장 발전이다. 즉 유아기의 본능적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려깊게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자신의 발전을 말한다.

둘째, 자기자신과 자기의 고유한 행동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유아는 자기 고유의 주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개별적 궁극성에 자기 자신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자기 자신을 통합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숙성을 지닌 종교적 심성은 종교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성숙한 인격 안에 통합하려는 종교적 태도를 지향하게 된다.

불교는 ‘나란 누구인가?’라는 의정을 갖고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닌 나 자신의 본질을 알기 위해 참구해 간다. 어린이가 회노애락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불행을 느끼며 사는 것은 진정한 나, 참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숙이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며, 이는 본래 성품인 불성이 있어 가능하다.

9) 『대정장』31, 불성론, 권1, 787쪽.

10) 『대정장』12, 대반열반경, 권7, 407쪽.

11) G. W. Allport,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MacMillan, 1950), 27쪽.

III. 아동의 불교적 사고발달단계

1. 종교적 성장과 사고발달의 단계적 분류

발달심리학이 인간의 성장 발달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질적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다면, 종교심리학은 이러한 발달 심리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종교적 체험, 종교적 개념, 절대자의 개념, 기도 등에 대한 그들의 사고와 태도 그리고 심리적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적 사고발달 단계를 분류한 종교심리학자들의 결과는 대체로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불교적 개념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적 발달 단계라는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근원은 같은 것이고 단지 그 뿌리 위에 자기가 선택한 종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종교심리학자들의 종교적 성장에 관한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종교적 성장을 발달의 성숙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함으로써 성숙론적 관점을 강조한 점이고, 둘째는 종교적 성장을 사고력의 발달에 초점을 두어 분류함으로써 인지론적 관점을 강조한 점이며, 셋째는 종교적 성장을 신앙심에 초점을 두어 심리사회학적 입장에서 분류한 것이다.

종교적 성장을 인간의 발달과정으로 파악하여 최초로 종교적 발달을 단계별로 분류한 사람은 Harms(1944)이다. Harms는 종교성 발달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우화적 단계(3-6세), 실제적 단계(7세-청년기까지), 개별화된 종교의 단계(청년기)이다.¹²⁾

Gruehn(1956)은 종교적 발달의 단계를 보다 인간의 심리학적 발달에 기초하여 영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6단계로 분류하였으며,¹³⁾ James Fowler(1981)는 신앙을 발달의 개념으로 이론화하는데 성공한 사람으로 신앙발달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들 단계에 영아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 시기를 신앙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보아 미분화된 신앙기(undifferentiated faith)라고 명명하여 중요하게 다루었다.¹⁴⁾

Fowler의 발달단계는 Erikson의 심리사회학적 단계와 관련지어 사회적 경험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신앙심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종교성 발달을 신앙이나 심리학적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설명한 학자들이

12) E. Harms,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xperience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Sociology*, 50. 1944), 112~122쪽.

13) W. Gruehn, *Die Frömmigkeit der Gegenwart, Grundsätze der Empirischen Psychologie*, (Münster(w): Aschendorff, 1956), 372~380쪽.

14) J. W. Fowler,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per & Row, 1981), 122쪽.

있는가 하면, 종교성 발달을 인지 발달론적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학자가 있는데 바로 Goldman(1964)이다.¹⁵⁾

아동은 지적발달단계에 따라서만 사고할 수 있으며 종교적 사고도 이와 동일하다고 본 Goldman은 이를 Piaget의 인지발달 4단계 중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3단계에 비추어서 종교적 사고의 발달단계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직관적-종교적 사고기(6-8세), 구체적-종교적 사고기(7, 8 - 13, 14세), 추상적-종교적 사고기(13, 14세 이후)이며, 각 단계 사이에는 중간기를 두어 연결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종교학자들은 인간의 종교적 성장이 어떻게 형성 발달해 가는지를 그들의 신념이나 중심이론에 바탕을 두어 특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교적 성장은 어느 한 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아동의 불교적 사고발달단계

불교는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시작을 수정된 순간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부여는 바로 태아기에 둔다. 따라서 태아를 인격을 가진 생명체로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강한 생명존중 의식을 갖는다. 그뿐 아니라 열 달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공생하는 태아기 동안에도 온갖 감정을 느끼며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불교적 태아관은 현대 과학적 실험연구로 규명되어지면서 그 탁월한 생명의식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생명관에서 보면, 종교적 사고발달의 첫 단계는 태아기이다. 이 시기는 종교적 사고의 기초를 이루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움트는 씨앗포고기 단계이며 이 모든 것이 모체 내에서 모체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간접적 흡수단계기라 하겠다.

출생 후 성장 발달과 함에 따라 종교적인 사고는 씨앗이 새싹을 틔우고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 발전해가는 구체적 분화를 이루면서 더욱 성숙되어 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다음은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불교적 사고발달의 단계별 구분과 그 특징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¹⁶⁾

15) R. J. Goldman, *Religion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4), 195쪽.

16) 황옥자, 앞의 책, 276-280쪽.

제 1단계 간접적 흡수단계 (태아기)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활하는 태중생활은 태아와 어머니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태아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육신과 마음을 형성해 가는 공생관계에 있으며, 공식, 공용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인지하는 세상에 대한 인상을 간접적으로 흡수하며 제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맑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해야 태아도 어머니로부터 맑은 기운을 받아 건강한 심신을 형성해 갈 수가 있다.

제 2단계 직접적 흡수단계 (영아기, 출생-2세)

태아가 어머니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계에 대한 인상을 흡수한다면, 이 단계의 영아는 자신의 인식기관인 육근의 작용에 의해 그 대상인 육경을 직접적인 체험의 방식으로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는 태아기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자신의 인식기관에 의해 접하고, 상호작용하며,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아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현상세계는 경이로움과 환희에 가득 찰 것이며,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애정이나 보살핌은 안정과 신뢰감을 안겨주게 되어 자유인으로 성장해 가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영아는 세상과의 첫 만남에서 미움, 질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도 노출되어 세상을 배워 나간다.

영아기의 정서는 다분히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이 있어서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마음의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반복되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영아의 무의식 속에 기록되어진다. 이처럼 영아가 부모와의 관계나 세상을 통해 경험하며 흡수하는 다양한 인상들은 심층 속에 저장되어져 자기자신과 부모, 세상을 바라보는 내적작동모형을 형성하며, 인성발달이나 종교적 심성을 이루어 가는 바탕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 3단계 모방적 단계 (유아전기, 2-4세)

2세에서 4세경의 유아가 보여주는 행동 특성 중 하나가 모방행위다. 모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본떠서 흉내내는 것을 말한다.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이 단계의 유아는 전조작적 시기의 하위단계인 미개념 발달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개념 발달이란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하여 사물의 원리나 현상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부모의 행동은 유아기의 모방대상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 단계 유아들의 기본 학습 형태가 주로 본보기와 모방에 의존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유아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모를 모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바른 언행을 통해 유아가 내면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의 모방능력은 유아의 내면에 있는 자유의 표현이며, 잠재능력의 표출이다. 부모나 주위 어른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유아에게 혼입되어 진다. 그리고 아라야식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유아의 의지에 따른 최초의 종교적 태도나 행동은 이처럼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

제 4단계 우화적 단계 (유아후기, 4~7세)

우화란 무생물, 동물, 식물 등에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부여하여 인격화하는 것이며, 유아기에 주로 나타나는 발달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인지 발달론적 관점으로 이 단계를 구분한다면 전조작기의 하위단계인 직관적 사고단계로 분류된다. 직관적 사고기에서는 사고와 지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사고와 지각이 대립된 채로 결론을 얻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지각이 우위에 선다.

그뿐 아니라 유아 후기의 주요특징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유아초기보다 정신적 표상으로 인한 상징적 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꿈과 현실 또는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과 현실의 상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실재론(dream realism), 세상만물이 모두 생명이 있다는 물활론(animism)적 사고는 이 시기의 현저한 언어발달과 더불어 세계에 대한 경험을 표상함에 있어서도 다분히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게다가 사물에 대한 판단이 직관적이어서 성인수준의 논리적인 일관성은 없기 때문에 유아들의 표상활동은 전 논리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발달 특성으로 인해 종교적 사고도 마술적이고 우화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은 어떠한 소망이나 원하는 일도 다 들어 주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수하고 티없이 청정한 유아의 마음상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인이 반드시 본 받아야 할 영동심이다. 설악산 오세암과 영원조사 오세암 등에서 다섯 살 난 어린 동자승이 성도를 했다는 아동성도설의 내용¹⁷⁾은 그런 점에서 어린 아동을 단순히 미성숙자라고 취급하기 보다는 불법의 인연으로 적절한 지도와 계기만 주어진다면 성인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존중하고 이끌어갈 교도의 대상인 것이다.

17) 박선영, 『불교와 교육』(현대불교신문45, 동국 역경원, 1982), 73쪽.

제 5단계 사실적 단계(아동기, 7-12세)

이 시기의 인지발달은 아동들의 종교적인 관점이나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중에서도 아동기는 자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탈중심화 현상으로 인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는 아직도 모방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고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심에 있어서도 모방적인 신앙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초기 아동기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아동기의 강한 책임의식과 도덕의식은 이 단계의 종교적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종교적 체험을 생성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잘못을 저지른 아동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와 의논함으로써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때 의지하고 의논했던 대상이 실제 인물이거나 종교적인 대상이거나 간에 아동은 그를 믿고 신뢰하게 되며, 그 대상은 자연스럽게 신앙심의 대상으로 변화·발전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논리적 사고 행위가 싹트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치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물에 대해 실재와 상상을 구별하게 되는 것은 이들 논리적인 사고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붓다에 대한 개념을 보면, 신비스러운 힘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므로 어린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보고 있다고 믿는 반면, 붓다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특징인 논리적 사고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아동의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드러난다. 만일 이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IV. 아동의 불교적 사고발달과 종교교육

불교 경전이 붓다의 가르침인 팔만사천가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수준)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며, 또한 부처님이 각각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중생제도를 실천한 것이라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발달 특성이나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도 많다. 따라서 아동의 불교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장에서는 어린이의 불교적 사고개념 발달에 따른 불교 포교내지는 교육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자극을 받아 종교와 처음 만나는 간접적인 흡수단계기에 있다. 그

래서 이 단계는 태아에게 최초의 종교적 씨앗이 심어진다는 의미에서 씨앗포교라 한다. 태아기의 씨앗은 모체 내에서 성숙을 하게 되고 출생과 함께 그 씨앗은 싹을 틔우게 된다. 새싹은 유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움트게 되므로 이 시기의 포교나 교육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유아기를 새싹포교의 시기라 칭한다. 그 중에서 영아기는 처음 새싹을 틔운다는 의미에서 새싹틔우기라 하며, 유아전기는 어린새싹이 외부 환경에 적응한다는 의미에서 새싹적응기라 하고, 유아후기는 새싹이 자라난다는 의미에서 새싹성장기라 칭한다. 그리고 아동기는 종교성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의미에서 성숙과정기라 한다.

다음은 이들 5단계의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종교교육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¹⁸⁾¹⁹⁾

1단계 간접적 흡수단계기의 불교교육: 씨앗포교기

불교적 생명관에서 보면, 태아도 인격을 가진 생명체로 존중하는 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생명보호나 교육에 있어서도 차별없는 높은 관심을 갖는다.

태아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많은 것을 듣고, 느끼며 성장해 간다. 어머니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라면 태아에게도 그대로 흡수되어 공유하는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를 잉태한 임신부의 모든 자세나 태도는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태아와의 공심, 공체, 공식이라는 인식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적 흡수단계기의 태아를 불교포교에서는 씨앗포교라고 말하며, 태아기에 심어져야 할 씨앗은 건강하고 맑은 기를 함유한 불심의 종자다. 임신부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육근을 청정히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을 맑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임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과 신기함 못지않은 두려움과 불안감 등이 교차되어 일어나게 되는데, 태아도 이때 임부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대보적경』을 보면, 중유가 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복덕이 없는 이와 복덕이 있는 이가 각자의 업에 따라 모태에 들어가지만, 이 두 중유 모두가 태에 들어갈 때 일으키는 생각이 대체로 모태 속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고 느낀다. 중유가 지은 전생업에 따라 모태 안에서 느끼는 생각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장수멸죄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여인아, 네 어린 것이 태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생장과 숙장이 있어 비유하건데 마치 지옥에 있는 두 돌이 몸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미가 더운 음식을 먹으면 더운 지옥 같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차가운 지옥과 같아서 종일토록 괴

18)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 283-295쪽.

19) 황옥자,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 발달과 교육』, 『불교문화연구』 제2집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1).

로워하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전의 내용은 오늘날 태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태아도 이미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다. 태아의 정서를 진정시키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임부 단 한 사람뿐이다. 따라서 태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는 태아에게는 의지처이며 전능한 신앙의 대상과도 같은 존재다.

불교에서는 임신부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태교수행으로 기도, 염불, 명상, 팔정도 태교법 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기도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 맑은 영혼과 인연을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교의 선각자들 중에는 그 어머니들이 훌륭한 아기를 잉태하는 인연을 맺기 위해 기도공덕을 쌓았다는 사례가 많다. 신라 김무림은 관세음보살에게 아기 낳기를 발원하여 자장스님을 낳았다고 하며, 대각국사 의천, 무학대사의 어머니도 좋은 인연의 잉태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명상은 마음의 삼독심과 번뇌를 벗어나리고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일념으로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상활동은 임부의 육근(안이비설신의)을 흐트러짐 없이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집중시키어 마음속에서 어떠한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도 다 벗어버리려는 노력이 따라야만 비로소 마음에 밝은 빛을 담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불전의 맛지마 니카야(Majjhima Nikaya)를 보면, 올바른 생각에 대해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올바른 생각이란 욕망과 성냄과 폭력을 여윈 생각이다. 그 대신 나와 남을 다같이 이롭게 하고 온화하며 아름답고 정다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²⁰⁾

임부가 심신정화를 위한 수행에 의해 육근의 현상적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찰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안정되고 맑게 깨어있는 상태로 가꾸어 간다면, 임부의 두려웠던 마음은 따뜻한 자비심으로 변화하게 되어, 태아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맑은 에너지가 전달될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를 통해 안락을 얻고자 하는 태아가 어머니와 편안하고 친밀한 교감을 할 수 있다면 태아의 마음에는 맑은 심성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된다.

실제활동: 태아 명상

- 주제선정이유: 임신부는 명상수행으로 신구의를 정화하여 맑은 에너지를 태아와 교류함으로써 태아의 건강한 발달에 힘쓴다.
- 활동단계: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명상을 한다.
- 태아의 영상을 관하여 마음속에 떠올리기-건강한 모습, 맑게 웃는 모습, 귀여운 모습 등을 상상한다.
- 태아는 나와 인연으로 맺어진 귀한 생명이다. “아가야, 너와의 인연이 정말 기쁘구나, 난 너

20) 황옥자, 앞의 책, 114쪽.

를 매우 사랑해. 건강하게 잘 자라렴, 네가 보고 싶어” 등 마음을 전하기

- 임신부는 육근을 청정히 가꾼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반복적인 만트라 외기는 임신부의 에너지를 맑게 하여 태아에게 밝은 기운을 전한다.
- 효과: 태아명상은 태아로 하여금 어머니의 맑고 밝은 기운을 흡수하여 마음속에 따뜻하고 밝은 심성의 씨앗을 뿌리내리도록 돕는다.

제 2단계 직접적 흡수 단계기의 불교교육: 새싹틔우기

태아기에 성숙된 종교적 씨앗은 출생과 함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새싹을 틔우게 되므로 이 시기를 새싹 틔우기라고 한다.

생후 1-2년 동안의 아기의 마음은 순수하고 청정한 아기부처의 마음이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자극은 영아의 기억과 무의식 속에 그대로 흡수 되어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돌보는 사람의 인품이나 태도, 가치관은 중요하다.

영아가 부모에게 의지하여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영아가 능력이 없는 존재라서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가능성의 존재이지만 이와 같은 잠재능력이 계발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발달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의 첫 시기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성장한다면 잠재능력의 계발이 저해됨은 물론 인격발달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영아기의 최초 종교대상은 바로 부모이다. 부모를 무조건 좋아하고 믿었던 마음이 훗날 붓다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훗날 신앙을 가지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아기가 부모를 통해 믿음을 형성하고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 있다면 아기의 내면에는 자비의 새싹이 자연스럽게 돌아날 것이다. 이를테면 아기를 대하는 부모의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 명상하는 부모의 모습, 방안 가득히 피어오르는 향내음, 경전 읽는 소리, 가족이 다함께 존중하며 즐거운 시간보내기, 식탁에서의 공양기도 등은 영아에게 안락과 행복감을 주면서, 그 자체로서 이미 불교적 심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 된다.

이와 같이 영아기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면서 세상을 대하고 적응해 나갈 자신만의 독특한 심성을 싹틔우게 된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예: 아빠가 아이를 품안에 껴안아주며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거나 ‘부처님, 우리 지연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세요.’라는 부모의 공양기도는 아이의 마음에 자신이 가치있고 사랑스런 존재임을 느끼게 한다.

화목한 가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 아이는 타인을 존중하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다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 이타애와 자비심의 작은 이를 바탕으로 돌아난다.

제 3단계 모방적 단계기의 불교교육: 새싹적응기

유아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는데, 이 시기의 발달특징과 더불어 가능해진다. 주요 발달특징은 현저한 언어능력과 신체운동능력을 들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표상능력도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유아는 개념발달에서 불완전하다는 특성이 있어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파악이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유아의 행동은 성인의 수준에서 볼 때 불안하고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아는 자신의 행동이 어딘가 서투르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현실 극복을 시도하며 적응해 나간다. 그러나 유아의 모방을 단순한 행동 따라하기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부모와의 내적인 유대를 맺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유아로 하여금 부모를 위대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믿게 만든다. 부모는 유아에게 모델이며, 의지처이고 소망을 들어주는 신앙의 대상이다. 따라서 부모의 종교적 신념이나, 태도는 유아의 종교적 정서를 일깨우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된다.

『화엄경36, 보현행품』을 보면, 보살의 바른 언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²¹⁾

“만일 보살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른 법을 듣지 못하게 되고, 부정하고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보살은 여래와 같이 생각하고, 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바른 행을 좋아하며 청정함을 구족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야 자비를 얻어 위가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바른 언행이나 맑은 심성은 유아기 자녀의 종교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인지적인 적응행동으로 연결됨으로 불교적으로는 새싹적응기라 부른다.

또한 이 시기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유아들의 하루 생활은 거의 놀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세상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싹튼 불교심성의 새싹이 잘 적응하여 성장하도록 즐거운 생활, 놀이와 같은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테면 이 시기의 유아는 가까운 주변이나 숲속 산책을 통해 자연과의 만남, 접촉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²²⁾ 그만큼 유아는 직접 체험하는 새롭고 신기한 구경거리를 좋

21) 『화엄경』36, 보현행품 (한글 대장경 1권, 1989), 15쪽.

22) 이수경,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 명상 프로그램』(서울: 양서원, 2006), 91쪽.

아하기 때문에 자연과의 즐거운 만남을 통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을 관찰하고 이를 온 몸 감각기관인 육근으로 느끼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소과 방정환은 ‘어린이는 기뻐할 때 몸과 생각과 기운이 자라나며 흥미도 쑥튼다’고 지적하였다. 이 말에서 우리는 어린이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부모와 사찰에 가는 즐거움, 사월초파일의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연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아기부처의 관육식을 경험해보며, 사찰의 음식도 맛보는 일, 붓다에 관한 이야기나 동화를 듣고 이를 역할극으로 꾸며보는 경험 등은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활동으로써 불교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키워가는 계기가 된다.

어린이의 심성은 본래 선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활동이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교육 및 포교 프로그램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이 단계의 유아에게 불교를 통해 심어주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① 부모, 교사, 또래친구를 믿고 따르기 ② 세상에 대한 순수함과 긍정적인 생각키우기 ③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다루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따뜻하고 신뢰로운 보살핌이 일관성 있게 주어지는 환경적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 활동: 숲속 길 산책하기

-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 나들이를 통해 숲에 사는 생명체들과 교감을 나누는 경험을 한다. -나무, 풀, 흙, 햇살, 곤충, 열매, 꽃, 바람, 공기.
- 숲에서 만나는 자연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러 생명체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
- 흙의 촉감을 손과 발로 느끼기, 나무를 두 팔로 껴안아 보기, 풀잎냄새의 향긋함을 맡아보기, 숲속의 여러 가지 소리들에 귀기울이기 등 자연을 육근으로 느끼고 탐색한다.
- 효과: 자연과의 접촉과 체험은 영유아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경이로움과 존귀함을 느끼며, 자연 속 모든 대상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과 나아가서는 인간, 자연, 우주가 모두 한마음으로 연결된 상생의 존재라는 연기론적 이치를 배워가는 중요한 기초경험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 4단계 우화적 단계기의 불교교육: 새싹성장기

유아후기에 이르면 어린이의 마음속에 싹을 틔운 불교적 심성은 그 나름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며 성장해가기 위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만큼 이 시기는 활동성이 많고 정서적으로도 일시적이며 변화가 많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유아기의 주요특징으로 자기중심적, 물활론적, 그리고 실재론적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유아가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느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붓다에 대한 개념도 자기수준에서

이해하고 이유를 붙여 납득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이름이 있는 것은 모두 실재한다고 믿는 실재론적 사고는 붓다, 보살, 사천왕 등이 현재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유아의 실재론적 사고를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붓다에게 편지를 쓰거나 보살이나 사천왕 등의 가면을 쓰고 그 입장이 되어 생각을 표현해 보기와 같은 놀이 등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흔히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다. 유아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덕목을 키워가게 된다.

유아는 전 논리적 표상활동에 의해 그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매우 우화적이고 마술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 활동은 이러한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제공할 때 효과적이게 된다.

이들테면 붓다에 관한 이야기²³⁾나 불전설화²⁴⁾를 그림동화, 구연동화, OHP, 매스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미있고도 우화적으로 꾸며 제시한다면 유아는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혀갈 것이다.

요즘 사찰에서 사월 초파일을 중심으로 동자승 체험하기나 단기 출가는 유아가 직접 불교를 체험하고 불심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수있어 권장할 만하다.

유아기는 철학적 사변이나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배우기 때문에, 불교교육이라 하여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활동주제를 교사의 부드러운 음성과 함께 “5분 명상”으로 진행한다면 유아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체험을 통해 마음의 작용을 일깨워나가게 된다.

『중아함경 제3권, 업상응품 제2, 14, 나운경』에는,²⁵⁾ 붓다께서 자신의 아들인 동자승 라홀라가 거짓말을 하고 장난치면서 비구승들의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지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붓다께서는 라홀라를 불러 발 씻을 물을 떠오게 하여 발을 다 씻은 다음에 라홀라에게 물었다.

“라홀라야,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세존이시여,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붓다는 그 물을 버리게 한 후 다시 물었다.

“라홀라야, 그 대야에 밥을 담을 수 있느냐.”

“세존이시여, 발을 씻은 물을 담았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23) 동봉, 『불교우화 백유경』, (서울: 불광 출판부, 1998).

24) 이지관, 『불교설화집』, (서울: 현음사, 1986).

25) 『중아함경』 제 3권 업상응품 제 2, 14 나운경.

“라홀라야, 더럽고 오만한 마음을 담은 몸 역시 깨끗하지 않느니...

장난치고 웃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어린이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가장 잘 배우므로 구체적인 실물이나 경험을 제시하며 스스로 터득해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불심 가꾸기에 필요하다.

실제 활동: 꽃씨 명상

- 여러 가지 꽃씨를 각각의 접시에 담아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교사는 아이들과 씨앗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씨앗들을 어디에서 보았는가? 어떤 모양이나 색깔로 자라날지 상상해보기, 꽃씨가 잘 자라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내 마음의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의 마음에는 어떤 씨앗이 있을까?
- 나의 씨앗은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예쁘고, 튼튼하고,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 등을 상상한다.
- 나의 씨앗이 잘 자라는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밥을 잘 먹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거짓말을 하지 않기. 곤충을 죽이지 않기.”
- 명상 활동: 내 마음의 씨앗을 떠올리며 마음전하기 명상을 한다. 명상 후에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기도문을 함께 읽는다.

자비관

내 마음 속에 선한 씨앗이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고운 말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긴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마음 속 씨앗이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바른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부처님!
오늘도 지혜롭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00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속 유치원〉

제 5단계 사실적 단계기의 불교교육: 성숙 과정기

아동기는 또래친구나 외부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직접 시도해 보려는 사실적 행동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가정·학교·사찰 등 여러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 아동의 종교적 성향은 점차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세상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신뢰하는 아동기의 특성에 따라 종교적 심성의 싹이 긍정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 환경의 역할과 임무가 크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정

아동기의 종교성 발달이나 태도는 가정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신앙심은 여전히 모방적이며 경신성이 강하여서 가정 구조가 종교적일 때, 이러한 구조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되며 종교적인 자세를 몸에 익히게 된다. 말하자면 가정의 종교적인 행동과 자세 여하에 따라서 아동의 종교적 관점이나 태도는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환경이 자녀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에 관련한 연구조사로 IFOP (Institut Francais d'opinion Publique)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 중 64%는 부모가 모두 신앙생활에 충실한 가정의 자녀이고, 그렇지 못한 청년은 부모 혹은 적어도 아버지가 열성이 없는 가정의 자녀였다. 무신론자라고 말한 청년의 67%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로 나타났다.²⁶⁾

이와 같이 가정의 종교적인 분위기나 환경은 모방성이 강한 어린이의 종교성 발달에 기초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고 부모는 아동의 인격이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은 물론 안정된 가정 분위기에도 일조하게 된다.

부모는 확고하고 긍정적인 종교관, 종교적인 행동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형식적인 설교나 훈계만으로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며 감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의 모범적인 행동이나 종교적 태도를 통해 자녀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서 부모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멀하면 저것이 멀한다’와 같은 연기적인 사고로 세계를 이해하면 사람, 사물,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모두 경쟁이나 지배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관계적 삶의 태도가 바로 자비이다. 부모의 자비심은 자녀와 하

26) 윤주병, 앞의 책, 150쪽.

나 되는 삶이며 너와 내가 하나 되는 평화의 삶이다. 아동기는 아직도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부모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부모가 웃어른들을 공경하는가와 같은 실질적인 본보기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된다.

특히 초기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체험이나 절실한 요구에 의해 종교심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모방을 통해 종교적으로 발달해 가게 되므로 쉽게 종교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는 반면 종교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건전한 종교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건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항상 인내하고 수행해야 할 ‘화두’로 인정하고 노력할 때 자녀는 바른 인격자로 성장하게 된다.

실제 활동: 가족사랑과 마음나누기 명상

-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아름다운 명상음악을 들으며 명상에 들어간다.
- 마음으로 호흡을 바라보며 관찰한다.
이때 숨을 들이쉬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윈다.
- 그동안 나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족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반성한다.
- 명상효과: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체온을 느끼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일체감과 비침이 일어나며, 가족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닌 사랑하고 도와주고 존중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깨닫는다.

2. 학교

학교는 가정을 떠나 형식적이고 규범을 준수하는 집단생활의 시작으로 어린이에게 있어 전인적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세계로의 전개이다. 어린이는 학교라는 새로운 양식에 의해 지능의 발달을 돕는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가정 안에서 애정을 독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제도와 규율로 이루어진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견해로부터 자기의 견해를 구별하고 분리하며 배합시킬 능력을 배워나가게 됨에 따라 개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한다.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이탈은 인과율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감지하도록 만든다. 그만큼 아동의 사고는 세계를 향해 확대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중일아함경』제8권, 17 안반품을 보면²⁷⁾ 성장기 아동이 지녀야 할 좋은 벗의 덕목을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나쁜 벗은 친구나 다른 사람을 차별성을 가지고 대하며, 못났다고 무시한다. 그러나 착한 벗이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자신을 뽐내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그러므로 착한 벗이 하는 일을 늘 생각하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학교생활을 통해 어린이는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점차로 타인을 배려하고 연기론적 사고 즉 세상의 모든 존재란 상의상관(相依相關)하고 있다는 우주의 참된 이치를 점차 배워나가게 된다.

부모는 전지전능하여 어린이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믿음은 이제 교사에게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부모를 신뢰하고 교사를 긍정적으로 믿는 아동은 자연스럽게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교사의 종교적인 태도나 행동은 아동의 종교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 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던 마술적인 개념은 아동 후기로 가면서 점차 감소되고 대신 부처님은 깨달은 훌륭한 분이며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는 현실적인 종교개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은 가정 밖의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종교관을 발달시켜 나간다.

어린이가 점차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종교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이에 따라 그의 종교생활은 매우 열성적이고 자발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 활동: 꽃 명상

■ 활동 1

- 조그만 찻잔에 물을 넣고 여러 가지 꽃을 띄운다.
- 교사는 아이들에게 “꽃들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는다.
아이들은 “아름다워요, 향기로워요, 노란색 꽃잎이요.” 같은 꽃의 모양, 색깔, 향기 등으로 표현한다.
- 꽃처럼 사람도 향기가 있단다. 누구나 남을 돕고 서로 나누어 갖는 마음을 내면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보시의 향기라고 해. 부처님은 바로 보시의 향기가 가득한 분이란다.

■ 활동 2

- 마음가꾸기 명상: 어린이에게 각자 꽃가게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상상해 보게 한다. 나는 어떤 종류의 꽃인지, 나의 꽃잎 색깔은 무엇인지를 영상으로 떠올려 보게 한다. 교사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어린이가 자신의 마음꽃을 상상하고 불교교리를 통해 이해하도록 이끈다.

“어떤 사람이 이 꽃 가게에 와서 여러분을 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물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꽃병에 꽂아놓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빨아들이고, 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신선하고 향긋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을 부처님 앞 탁자에 놓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꽃병 속에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천천히 꽃잎의 색깔이 시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향긋한 향기를 뿜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꽃잎은 힘이 없어지고, 색깔은 희미해집니다. 이제 시들면서 색이 바래집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미 시들어진 꽃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 즉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사람들의 몸 또한 여러분의 꽃잎처럼 변해갑니다. 꽃잎들은 점점 시들다가 사라져 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무상함을 알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²⁸⁾

3. 사찰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도량(道場)으로서 사원이라고도 한다. 사찰은 수행의 도량이다. 사미율에는 절을 “출가제자가 불법을 섬겨 받들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찰은 마음의 번뇌를 정화하고 지혜를 닦는 수행장으로서 신성하고 장엄한 성전이며 기도하고 참회하는 신앙의 귀의처이다. 어린이들은 사찰 참배를 통해 불교와 친숙하게 되고 불교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찰은 불교의식이나 불교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종교적 정조나 종교심 발달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은 종교적 체험의 장이요, 인격의 수련장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사찰 중심의 행사로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불교학교, 어린이 수련회, 매주 일요일의 어린이 법회, 템플스테이 체험 등은 사찰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며, 불심을 성숙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행생활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사찰의 발우공양 체험은 어린이들이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고 환경오염을 막는 자연생태환경 공양법임을 깨닫게 하는 좋은 심신수련활동이다.

불교가 이 단계 수준의 어린이들에게 종교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상의 목적은 행복한 마음 가꾸기이다. 행복한 마음은 나 자신을 좋아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친구나 이

28) 이수경,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 명상 프로그램』(서울: 양서원, 2006), 31쪽.

웃을 돕고 나누는 자타불이의 마음(자비)에서 온다는 사실(지혜)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힘키우기는 이 단계의 어린 불자가 키워야 할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보며, 사찰에서의 여러 활동은 이러한 가능성을 일깨우고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사찰에서 할 수 있는 마음가꾸기 명상활동 사례 하나를 들어 본다.

실제 활동: 염주와 염주 실 관찰하기 명상

■ 주제선정이유:

- 인간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에 의해 수많은 번뇌(108)를 만든다.
- 염주를 돌리는 것은 우리의 108 번뇌를 열반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 활동: 스님은 다양한 염주를 준비하여 어린이들이 염주를 만져보고 탐색하도록 한다.

- 스님은 아이들에게 염주에 대해 질문한다.
- 염주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고르는가?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염주 알을 보고 고르며, 그 안에 염주 실은 보지 않는다.
- 염주 실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

(손으로 염주를 돌릴 때에 염주 실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한다.)

■ 염주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염주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염주를 움직이게 만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혜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염주 실을 지혜반야의 줄(지혜의 줄)이라고 하며 반야의 줄을 환하게 밝혀준 분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

■ 명상활동: 내 마음의 그릇에는 어떤 종류의 염주가 담겨 있으며, 그 염주에 얽혀 있는 걱정 불안 번뇌들은 무엇인지를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 관찰을 한다.

■ 명상효과: 부처님은 번뇌, 욕망, 원한과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마음이 꾸기 수행으로 지혜를 키워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 어떤 번뇌와 욕망도 극복하여 편안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어린이를 위한 사찰에서의 불교행사 종류와 그 의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불교행사

불교에는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자들에게 축제의 날로 기리는 행사는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음력 7월 보름), 성도제일(음력 12월 8일), 열반일(음력 2월 15일)인 사대명절 행사가 있다.

그 외에도 매월 15일(보름)에 한 차례 절에서 열리는 포살법회가 있다. 포살법회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참회하고 지계실천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는데 있다.

어린이들은 전통적인 불교행사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각 행사가 지니는 의미를 알게 되고 불교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제자로서의 긍지와 마음이 짐을 굳게 다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어린이의 기도

불교에서의 기도는 기원이라고도 하며 불보살의 가피력을 빌어 심신을 정화시키고 재앙을 없애며 복이 깃들도록 비는 것이다. 기도는 스스로 자기 암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써 용기를 가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기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도는 어린이와 부처님을 맺어주고 소원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를 테면 칭찬과 찬양을 하며 부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에는 기도가 우선하게 된다.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부처님을 끌어들여 함께한다는 의지처를 형성시켜 주는 것도 바로 기도의 힘이다.

흔히 기도라고 하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를 생각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기도는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도의 형식을 부정해서라기보다는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편안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들의 기도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는 좋은 기분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모든 지혜의 시초는 부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있다.

넷째 기도하는 내용은 제한이 없으며 또한 간접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기도의 자세나 장소는 어떤 형태로든 묵인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나 무릎을 꿇고 하는 것 이외에도 어린이가 편한 자세이어야 한다. 예컨대 친구들과 놀이하면서, 목마를 타면서, 누워서, 책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안방, 거실, 버스 안, 놀이터, 학교 교실 등 언제 어디에서 해도 좋다.

여섯째 아침예불, 공양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의 기도, 기쁜 일, 슬픈 일,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 등 다양한 기도의 유형이 있다. 어린이들은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어느 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린이 법회

어린이 법회는 어린이들이 사찰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부처님을 좋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불제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활동이다. 특히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상생하는 법을 익히고 생명의 존귀함도 깨닫게 된다.

사찰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법회는 현재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불교학교나 일요법회 그리고 템플스테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명상, 불교경전배우기, 찬불가, 요가활동, 만다라 그리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실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단법인 동련²⁹⁾이나 키즈붓다³⁰⁾ 등에서 어린이 법회용 자료들이 많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범회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범회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중심의 불교아동교육연구소 창립은 그런 맥락에서 불교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³¹⁾

다음은 어린이 범회에서 꼭 지켜져야 할 기본 원리를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1) 어린이에게 범회활동은 즐겁고 유익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 (2) 어린이가 범회 의식을 익히고 준수하도록 한다.
- (3) 어린이 범회의 내용은 붓다의 가르침인 불법에 따라 구성한다.
- (4) 어린이가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이끌어 준다.

V. 결 론

불교의 가장 이상적 인간상은 부처님이다.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몸소 체험한 인간이며,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탐구한 분이다. 따라서 불교는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모든 현상과 우주의 진리를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깨닫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래서 불교는 반야 지혜를 증득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에 따라 불교 아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붓다와 같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격자가 되는 것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 방법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 수행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데 둔다. 그만큼 불교는 어린아이도 붓다와 같이 깨달음을 증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간관을 갖는다.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심층에 종교적 정서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린 아기도 좋은 것에는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싫은 것은 두려워하거나 쩡그리며 접근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동 반응들은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어져 선택한 것은 추구하고 신뢰하며 행복도 느끼게 되지만, 옳지 않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나쁜 행동과 벌을 연합하면서 양심을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안내하고 이를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일은 이 시기의 초자아 발달에 영향을 주며, 또한 종교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9) 사단법인 동륜은 대한어린이지도자 연합회나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중심으로 어린이 교육 및 포교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동화구연대회 개최와 연꽃 발간 등은 불교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0) 키즈붓다는 어린이 세상, 불교콘텐츠,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어린이용 자료 개발로 불교 어린이 포교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31) 2008년 창립한 동국대학교 불교아동교육연구소는 불법에 기초하여 아동교육용 교재교구와 범회프로그램 자료를 연구 개발하고, 불교 어린이 교사교육과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의 종교성 발달을 불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음의 5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그 첫 단계인 태아기의 간접적 흡수단계, 제 2단계 영아기인 직접적 흡수단계(출생-2세), 제 3단계는 유아전기인 모방적 단계(2-4세), 제 4단계는 유아후기인 우화적 단계(4-7세), 제 5단계는 아동기인 사실적 단계(7-12세)이다.

그리고 이들 5단계에 따른 불교교육의 내용은 각 단계마다의 발달수준이나 특성을 중시하면서 지혜의 싹과 자비의 인격이 형성되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한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지혜와 자비심을 키워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사랑하며 아끼는 건전하고 바른 인격자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가득하리라 믿는다.

본 연구가 미성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이라는 점과 특히 불교에 대한 어린이의 시각이나 관점은 성인 수준과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린이 수준의 발달적 특성이나 환경적 배려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교육활동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어린이의 불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붓다의 인격을 닮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다. 어린이도 성불할 수 있다는 불성설을 바탕으로 어린이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아끼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원융과 화해의 덕목을 키워간다면 미래는 더욱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 믿는다.

이것은 불국토를 지향하는 불교계의 염원이며, 불교아동교육의 목표이다.

참고문헌

- 『대보적경』,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대정장』12, 대반열반경 권 7.
 『대정장』31, 불성론 권1.
 『법화경』,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장수멸죄경』, 서울: 향련사, 1986.
 『정선 아함경』, 서울: 시공사, 1999.
 『중아함경』2권, 한글 대장경, 동국역경원.
 『중아함경』제3권, 업상응품 제 2, 14 나운경.
 『증일아함경』1권, 한글 대장경, 동국역경원.
 『증일아함경』제8권, 제17 안반품, 한글대장경.
 『화엄경』36, 보현행품, 한글대장경 1권, 1989.
- 김지현. 「불교 명상활동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3.
- 동 봉. 『불교우화 백유경』. 서울: 불광 출판부. 1998.
- 박선영. 『불교와 교육』. 현대불교신서45. 동국 역경원. 1982.
- _____. 『불교와 교육』. 서울: 학지사. 2006.
- 윤주병. 『종교심리학』. 서울: 서광사. 1986.
- 이수경.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 명상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6.
- 이연숙. 『정선 아함경』. 서울: 시공사. 1999.
- 이종미. 「명상이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지관. 『불교설화집』. 서울: 현음사. 1986.
- 황옥자. 「불교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 연구』제29권. 한국 종교교육학회. 2009.
- _____.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2007.
- _____.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 발달과 교육」 『불교문화연구』제2집.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1.
- Allport, G. W.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MacMillan. 1950.
- Fowler, J. W.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per & Row. 1981.
- Goldman, R. J. *Religion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4.
- Gruehn, W. *Die Frömmigkeit der Gegenwart Grundtatsachen der empirischen Psychologie*. Münster(w): Aschendorff. 1956.
- Harms, E.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xperience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Sociology, 50, 1944.

Steiner Rodolf, *Die Erziehung des Kindes / Die Methodik des Lehrens*.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leben, 1961.

원고접수: 2009년 5월 21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황옥자

① 전공 : 불교아동교육 / 소속: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불교아동교육, 불교부모교육, 부모와 아동상담

③ 주요논저: 불교아동교육론, 내 아이 마음 키우기, 동요와 손유희

④ E-mail: hoj@dongguk.ac.kr

Abstract

Buddhism and Child Education

Hwang, Okja

Dongguk University

The paper incorporated Buddha's teaching into child education with the view to helping a child grow into an individual possessing wisdom and mercy who can live along with all life.

To this end,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from the religious perspective was divided into five distinct stages, and then Buddhist education at each stage of development was discussed.

The first stage is a period of 'indirect absorption.' The period is called the 'stage of seed propaganda,' during which Buddhist mind begins to be planted (fetal period).

The second stage is a period of 'direct absorption.' The period is called the 'burgeoning stage' as child's Buddhist way of thinking begins to bud(birth-2 years).

The third is 'emulation stage.' The period is called the 'bud adaptation stage' as child's Buddhist way of thinking begins to adapt (2-4 years).

The fourth is 'fabled stage.' The period is called the 'bud growing-up stage' as child's Buddhist way of thinking begins to mature (4-7 years).

The fifth is 'reality state.' The period is called the 'maturity stage' as child's Buddhist way of thinking becomes complete (7-12 years).

Key words: Buddhist Way of Thinking, Stage of Seed Propaganda, Burgeoning Stage, Buddhist View of the World, Coexistence